

기독교학교의 필요성

- 김바울 (로고스 크리스천 아카데미) 교장 / 2003. 4. 22 -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성경적인 기독교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만이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참된 기독교 학교 교육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교육은 철저히 성경에 기초하여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간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타락한 존재로서 모두가 구원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에 있어 인간 개개인의 변화의 방향성과 목적, 방법 등은 반드시 성경에 기초하여야 하며, 교육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변화는 하나님의 언약인 동시에 은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있으며 진정한 교육은 진리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독교 교육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재 국내에는 많은 기독교 계통의 학교가 있지만, 가르치는 내용이나 학교를 운영하는 정신에 있어서 일반학교와 별로 다를 것이 없어 진정한 기독교학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설립 당시에 철저한 기독교정신과 목적에 의해 세워졌던 학교들이 사회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가치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교육에 대한 기초가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학교를 후원하는 교회와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기독교 학교는 유명무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기독교학교는 바른 교회공동체와 건강한 가정의 토대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교육을 위해서는 모범적인 기독교 교육과정과 성경적 세계관에 투철한 교사로 구성된 기독교 학교가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교회에서 부모가 정상적으로 말씀을 공급받고 그와 동일한 신앙으로 자녀를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정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일이 선행되지 않은 채 기독교학교를 세우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른 기독교 학교교육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학교교육은 철저하게 세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내용은 세상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수단적 가치만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학교교육을 오직 자신의 장래를 위한 수단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게 되고 급기야 출세지향적인 교육문화를 지향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자는 교사들입니다. 따라서 교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세계관과 가치관은 바로 그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의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독교적 가치관과 분명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교사의 역할과 가르침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땅에 분명히 학교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섭리가 드러나고 모든 진리를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에 서 있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여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인간을 강조하는 인본주의 세계관을 그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교육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서는 교육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 하며 교육의 궁극적 목적도 역시 자신에게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도 자신의 뜻과 진리에 근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뜻과 법을 알 수 있는 성경에 기초해야 하며, 성경 속에는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구조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기독교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세계관교육 이라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고 경건훈련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교육과는 달리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구조라고 할 수 있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입장에서 새롭게 재정립하고 해석할 수 있는 안목과 신념을 형성하는교육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통해 자녀들을 올바른 기독교적인 격적인 가치관을 확립하게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학습자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잘 발휘하게 인도하는 것이 교사의 임무이며 기독교교육의 책임인 것입니다.

교육은 하나님께서 창조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교육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관점에서 기독교학교가 곳곳에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기독교 학교들이 많이 일어나 올바른 교육을 통해 자녀들을 바른 신앙의 가치관과 인격으로 키우며 무너진 공교육을 일깨우고 바람직한 교육의 흐름을 기독교학교가 주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